

# 성리학의 시대와 주희의 환상

- 유학 현대화의 단초 모색 -

김경수\*

## 차례

- I. 변화의 시대와 유학
- II. 유학에서 성리학으로
- III. 『근사록』 『주자가례』 『소학』의 편찬과 주희
- IV. 『대학』 『중용』의 사서편입과 주희
- V. 유학의 현대화를 위한 제언

## 【국문초록】

20세기에 들면서 유학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이제 유학은 더 이상 옛날의 전성기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학이 성리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朱熹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그는 많은 저술을 남겼지만, 여기서는 그 중에서 성리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다섯 가지 저술의 편찬의도를 분석하여 그가 구상하였던 성리학적 질서의 이상세계를 분석하였다.

그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이 바로 유교적 禮法의 붕괴였다. 당시는 도교와 불교의 예법제도가 유행하여 사대부들도 유학의 복잡한 禮制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그는 『家禮』를 편찬하여 유학의 예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런 방법만이 많은 사람을 유교의 예법으로 다시 돌이키는 첩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近思錄』을 편찬하여 성리학의 범위를 한정하면서, 이 책을 통하여 성리학에 입문하는 초학자들부터 시골의 선비들까지 학문에 입문하는 도구로 삼도록 하였

---

\*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다. 그는 독서의 순서를 정하였고, 『小學』을 편찬하여 어린아이 때부터 철저히 유교적인 학습에만 짓어들도록 만들었다. 한편으로 그는 성리학의 목표와 그에 이르는 단계 및 학문방법론으로서의 수양론도 완성하였다. 바로 『大學』과 『中庸』을 중시하여 그 요점을 설명한 것이 그것이다. 그는 스스로 당시에 있어 도통을 이어받은 '스승'으로 자임하였으나, 이런 강한 자부심으로 인하여 그는 政敵들의 미움을 사고 황제의 기피대상이 되어 불행하고 쓸쓸한 만년과 임종을 맞이한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로 꿰려고 한 그의 꿈은 이론적 틀로서는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틀의 많은 부분들은 억지와 조작으로 된 것들이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사상가로서 누구도 이루지 못한 종합적 시스템을 완성한 인물이었으며, 그의 사상은 이후 700여 년 동안 동아시아의 주류로서 작동해왔다.

오늘날의 유학이 일정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나 사상과의 철저한 역할분담을 전제로 해야 한다. 유학은 교양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침이나,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지도자를 위한 유학적 리더십의 모형화에 힘을 기우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교적 예제를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간소한 예법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지만, 유교적 예교의 강요는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유교도 물질문명의 시대에 개인의 성찰을 위한 수양법을 보다 모형화해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보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주제어

유학, 성리학, 수기치인, 사대부, 사서인, 이단, 예교, 주희

## I. 변화의 시대와 유학

필자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경남지역 특히 서부경남에 소재한 여러 집안의 고문현들을 조사할 기회를 몇 번 가졌다.<sup>1)</sup> 그 과정에서 몇 가지 특

1) 필자는 일찍이 1987년에 남명학연구원이 발족하고 난 직후 남명학과의 자료수집 책임을 맡은 오이환 교수를 보조하여 그 일을 도왔는데, 약 1년 남짓 기간 동안에

징적인 점을 발견했는데, 내용상으로는 南冥과의 연원을 강조하는 책이 많다는 점과, 외형적인 분류로 볼 때는 대부분의 집안에서 필사본 형태의 禮書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이는 영조 초의 무신시대 이후 벼슬길이 막힌 이 지역 士族들이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볼 수도 있다. 집안마다 조금씩 독특한 예법의 전통을 지킴으로써 사족으로서의 위상을 보존하고, 향촌사회에서 지식인으로서의 품격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조선 후기 강우지역 유학의 양상이었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이 되고 민주공화체제로 바뀌고서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유학의 모습은 어떤가? 유학을 접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통을 고수하는 나이 많은 儒林집단으로 자처하는 인물들이고, 둘째는 유학 내지는 성리학을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며, 셋째는 교양 또는 취미로 유학의 경전을 공부하는 일반인들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 순수한 의미의 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필자는 실제로 서원이나 향교의 采禮에 참여하여, 예법을 잘 알고서 행사를 주도하는 인물들 중에서 사실 자기 집에서는 제대로 조상의 제사도 지내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다. 엄격한 유교식의 예법대로 집안의 제례를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자못 의문스럽다. 그러면서 그들 중 다수는 유학의 경전에 대해서는 그다지 정통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유학이나 성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유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 중

---

서부경남 각 지역의 많은 고문헌 소장자 및 소장처를 방문하여 대략 30,000여 책을 열람한 바 있다. 또한 2004년부터 1년 8개월간에 걸쳐 문화재청의 용역사업인 진주 및 함양지역의 고문서와 고문헌을 중심으로 하는 동산문화재 조사사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2007년부터 3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사업으로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수행한 경남지역목판조사사업에도 참여하였다.

에 과연 몇 명이나 자신을 유자라고 자칭할까? 대부분은 순수한 학자적 관심으로 유학을 연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양 또는 취미로 유학경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굳이 부연하여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오늘날 순수한 유학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성균관을 위시한 전국의 서원이나 향교에서 행하는 采禮는 이미 관광상품이 된 색채가 강하며, 아니면 오히려 하나의 문화유산인 무형문화재로서 전승되는 느낌이 없지 않다. 또한 차례를 받들 사람이 없거나 재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그마저 폐지했거나 폐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아직도 전통적 방식대로 그 의미와 형식과 정신을 간직하면서 행사를 하는 곳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이제 그와 같은 공적인 의례로서의 유교는 더 이상 입지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유학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니면 역사 속의 문화재로서 박물관으로 가든지!

본고에서는 유학의 역사를 간략히 뒤돌아보고서, 성리학의 시대에 주희가 꿈꾸었던 이상세계를 위하여 스스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주희는 많은 저술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필자는 『근사록』 『가례』 『소학』의 편찬과 『대학』과 『중용』의 보완을 통한 四書로의 편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주희는 이것들을 통하여 완벽한 이상세계를 구현하려는 환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환상을 위하여 무리한 논리와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것은 오직 단일한 원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상세계를 건설하려는 그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작업이었다. 그의 꿈은 통치자와 기득권자들에게는 좋은 무기가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백성들에게는 수백 년 동안의 족쇄가 되어 삶을 구속하였다. 주희가 가졌던 환상의 실체를 밝혀서, 다양성과 개인주의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유학의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 II. 유학에서 성리학으로

유학의 개창자인 孔子가 살았던 시기는 어떠했는가?2) 공자의 사회철학은 ‘克己復禮’와 ‘正名’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공자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 공자는 춘추시대(BC 770-BC 403) 중·후반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BC 1122년에 건국한 周나라는 초기의 안정기를 지나 서쪽 오랑캐인 犬戎의 침입을 받아 수도인 鎬京이 파괴되고 幽王이 죽임을 당한 이후, 平王이 즉위하여 수도를 洛邑으로 옮기게 되었다. 평왕이 수도를 옮긴 해부터를 보통 춘추시대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이로부터 춘추시대의 가장 강력한 제후국 중 하나이던 晋나라가 내분으로 인하여 韓·魏·趙의 3국으로 나뉘기 전 해인 BC 403까지를 춘추시대라고 한다. 공자의 생몰시기를 BC 551-BC 479년으로 비정하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 시기를 어떻게 파악하였으며, 어떻게 대응하였던가? 주나라 왕실은 천도 이후 晋나라에 황하 이북의 땅을 넘겨주어, 직할지가 현저히 줄어 종주국으로서의 명목만 유지하였지 실제 그 위상은 상실하고 있었다. 제후국들은 서로 패권을 다투면서 작은 나라들을 합병하여, 건국 초기에 240여 개에 이르던 제후국들이 불과 10여 개 국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와중에 이른바 ‘春秋五霸’가 이어서 등장하여 명분으로만 ‘존왕양이’를 주창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패도정치로 왕의 역할을 대신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한편 제후국들은 또한 그 내부에서 발호한 대부들의 힘에 의해 분열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기도 하였다. 결국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

2) 공자와 유학의 관계에 대해서 최근에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었다. 김정일, 『유교탄생의 비밀』(바다출판사, 2013)에서 저자는 갑골문과 청동기의 文 그리고 죽간에 등장하는 글들의 의미변천사를 추적하여 유교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서서히 형성되어 왔으며, 공자는 이를 집대성하여 그 대략적인 골격을 완성한 인물 정도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던 진나라는, 管仲의 도움을 받아 첫 번째 패자로 등장한 齊나라 桓公을 이어 패자에 올랐던 文公 이후 급속도로 분열의 길로 나아가, 결국 三晉으로 나뉘게 되었다.<sup>3)</sup> 제후국들의 발흥과 대부들의 권력쟁탈은 모두 경제력의 상승으로 인한 개인주의의 강화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진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牛耕과 이랑농사는 농업생산성을 극도로 향상시켰으며, 이는 다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고, 다시금 상공업의 발달을 촉진시켜 힘 있는 제후국과 대부들은 이를 이용하여 각자의 힘을 극대화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sup>4)</sup> 경제력의 성장이 타고난 신분질서를 거부하는 개인주의 의식을 촉발하고, 이로 인하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이제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순수한 의미의 봉건제도는 파괴되고, 그에 따른 사회질서도 붕괴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이런 시기에 殷나라의 후예에게 분봉해주었던 宋나라 微子の 17대손에 해당하는 신분이면서도 몰락한 가문에서 불우하게 태어난 공자의 꿈은 무엇이었는가? 공자 학문의 출발점을 흔히 ‘憂患意識’이라고 한다. 혼란에 빠진 시대를 구하고자 하는 걱정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이다. 공자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현실을 부정하였다. 은나라의 후손이면서도 주나라 시대에 태어난 자신의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周公 姬旦이 만든 ‘宗法秩序’에 의한 봉건제도가 무너지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를 되돌리고자 하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공자는 왜 주나라 초기의 제도로 당시의 상황을 되돌리고자 하였는가? 그것은 사회의 혼란을 바로잡는 방법인 동시에 자신의 원래 신분을 회복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공

3)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기는 하지만 본고의 논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고 가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잘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는, 김학주(2003), 13-19쪽이 참고할 만하다.

4)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로는 許進雄 저, 홍희 옮김, 『중국고대사회』(동문선, 2003)의 제5장에서 자세히 논구하고 있다.

자는 어떤 방법으로 시대를 되돌리고자 했는가? 그것이 바로 ‘극기복례’와 ‘정명’이다. 개인주의의 원천인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여 이미 잘 정비되어 있는 예의 질서로 돌아가서 각자의 위치를 고수하자는 말이다. 그러나 역사의 진행을 되돌리고자 하는 공자의 꿈은 필연적으로 좌절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셈이다.

공자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결국 주공이 만든 법과 제도, 즉 五經을 정비하고 이를 현실 정치에 실현하려고 애쓰다가, 드디어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고서는 하늘을 원망하며 『春秋』를 저술하여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하고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물려주는 것이었다.魯나라 조정에서 예의 실행을 강력히 주장하다가 권력을 잡고서는 이에 방해되는 소정묘를 죽였지만, 군주가 공자의 예를 싫어하고, 대부의 집에서 참람하게 八佾舞를 시행하는 것을 보고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국을 떠나 천하를 주유하게 된다. 자신의 주장을 실행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다녔지만 모두 허사로 끝나고 오히려 죽을 고비만 여러 차례 넘기게 된다. 공자는 평생 자신의 꿈을 위해서 투쟁했으나 끝내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는 하늘을 원망하였지만 자신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수많은 제자를 길러 꿈을 전수했기 때문이다. 등용되면 나아가 일하고, 버리면 물러나서 한가롭게 지내면서도 원망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여러 제자들에게 전해진 공자의 꿈은 불과 한 세대가 지나고부터 바로 온전한 전체의 모습을 잃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10대 제자 중에서 오직 曾子만이 공자의 본뜻을 이어받은 것이며, 이것이 子思를 통해 孟子에게 전승된 것이 바로 공자의 진정한 뜻, 즉 유학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허구로 만든 도통론의 실체이며, 여기에서 공자 유학의 일차적인 온전함이 무너지게 되었다. 공자는 당시

로 본다면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였으며, 제자들에게도 六藝를 고루 익혀야 한다고 했다. 10대 제자들도 각각의 장점이 있었고, 공자는 또 '四毋'를 말하여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점을 매우 경계하였다. 그런데 이후 공자의 문도임을 자처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이런 점에서 공자의 뜻을 저버렸다고 할 수 있다. 변화의 시대마다 나타난 유학자들은 그 어떤 다른 주장을 가진 인물들보다 강한 독선주의에 입각한 我執을 드러내었다. 이제 유학은 이데올로기화 되어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그 첫 번째 인물로 맹자를 들 수 있다. 맹자 평생의 임무는 楊朱와 墨翟을 배척하여 공자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그가 '양주와 목적의 도를 그치지 않으면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비판한 양주와 목적의 결점이란 '천하의 말이 양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목적으로 돌아간다. 양주의 爲我說은 임금이 없음이요, 목적의 兼愛說은 아버지가 없음이다. 임금이 없고 아버지가 없음은 바로 禽獸<sup>5)</sup>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맹자가 말하는 것처럼 당시 양주와 목적의 이론이 천하에 성행하고 있었다면, 그 이유가 오직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패륜적 행위가 지배했기 때문일까? 실제로 그것은 농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상공업의 성행, 그리고 무엇보다도 봉건적 신분질서체제가 붕괴하면서 가져온 개인주의의 발달에 기인한 것이었다. 극소수의 귀족(人)만이 사람으로 간주되던 시기에서 다수(民)가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맹자는 이러한 현상을 금수와 같은 사회로 보았다. 오직 '人'만을 위하는 봉건체제에서 '民'의 자

5) 이상 두 구절의 출처는 『맹자』 「등문공 하」의 '楊墨之道不息 孔子之道不著'와 '天下之言不歸楊則歸墨 楊氏爲我 是無君也 墨氏兼愛 是無父也 無父無君 是禽獸也'를 인용하였음.

아의식이 싹트는 시기의 철학으로 대두한 것이 양주와 목적의 사상이었는데, 맹자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말하자면 극우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고 復古主義를 주창한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공자와 요순을 내세웠다. 맹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하는 바가 거의 없지만, 그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생했던 것과 나이 들어서 제자를 가르치고 세상을 유세하면서 부와 명예를 크게 얻었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이는 그의 원래 신분이 '人'이었지 '民'이 아니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는 의미이다.

한나라에 이르러 유학은 백가를 물리치고 '獨尊儒術'의 시대를 맞이한다. 서한의 유학은 경학이 중심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공자 이래 크게 두 파로 전개되어온 유학 중 子夏로부터 荀卿으로 이어지는 傳經派의 역할이었다.<sup>6)</sup> 그러나 漢高祖 劉邦 이후 西漢 초기 제왕들의 통치이념은 '黃老思想'에 바탕을 두었다. 특히나 文帝와 景帝의 시대는 이러한 경향이 강하여 백성들이 안락한 생활을 누린 것으로 잘 알려져, 이른바 '文景之治'의 시대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황로사상에 의한 통치는 태평을 구가하였지만, 유학의 등장은 이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선, 秦나라 때부터 시행되던 '挾書律' 즉 책을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법이 惠帝 4년(BC 191)에 이미 폐지되어 천하의 숨어있던 책들이 속속 세상에 드러났다. 이리하여 각 경전의 전문가들이 등장하고 유학이 서서히 정치적 색채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또한 오랜 평화의 시대를 거치면서, 북방에 등장한 흉노와의 관계도 외교적으로 유지하였으

6) 가노 나오키, 오이환 역, 『중국철학사』(을유문화사, 1986)의 136쪽에 이른바 宋儒들에 의해서 도통론이 제기되면서 부각된 曾子 - 子思 - 孟子 계열의 傳道派와 구분되는 傳經派에 대한 계보를 이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또한 269-270쪽에서는 이른바 5경의 전문가를 계통별로 잘 정리해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치밀한 연구가 부족한 느낌이다.

나, 무제가 즉위하여 다시금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론의 통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고, 여기에 결정적 근거를 제공한 인물이 동중서였다. 동중서는 유학의 역사상 이단을 배척하고 다양성을 말살한 두 번째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公孫弘과 더불어 董仲舒는 『춘추』 公羊傳의 전문가였다. 동중서는 賢良文學으로 추천되어 등용되었는데, 그가 올린 對策에 의해 유학이 학문의 표준이 되고 통치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 스승들은 道를 달리하고, 사람들은 論을 달리하며, 百家는 方을 달리하여, 가리키는 뜻이 같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위로는 통일을 유지할 수가 없고, 법제가 번번이 바뀌며, 아래로는 지킬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신은 생각건대, 육예의 여러 과목 가운데 공자의 학술이 아닌 것은 모두 그 도를 끊어 함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사악하고 치우친 학설이 종식될 것이며, 그러한 후에야 백성이 따를 바를 알 것입니다.<sup>7)</sup>

공자의 학설이 아닌 것은 모두 그 도를 끊어야 된다는 주장은 바로 독선주의이며 독단인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로부터 백성의 삶은 질곡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다양성이 사라진 대신 기득권의 보수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무제 劉徹이 이 설을 받아들여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중국정치사의 통치이념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점은 그가 유학 중에서도 오직 今文 『춘추공양전』만을 정통으로 세워서 유학의 다른 경전들조차 배척했다는 점이다. 그는 춘추의리를 강조하여 실은 이상적인 유학의 통치를 무시하고서 오히려 刑名에 의한 통치를 행했다. 그와 공손홍 등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한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노우에 스스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7) 이는 『한서』 「동중서전」에 있는 내용임(위의 책, 267쪽에서 재인용).

공손홍은 “춘추의 의리로 신하들을 읊아매 일약 한나라 재상의 자리에 올랐”으며, 동중서는 『公羊董仲舒治獄』을 저술하여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조정에 큰일이 있으면 형명 전문가인 酷吏 張湯이 그의 집으로 파견되어 말하자면 고문으로서 계속 정치에 관여했다. 무제 때부터 유교가 정통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법가의 엄벌주의가 폐지되었음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sup>8)</sup>

유학이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은 사실과 내용은 실로 이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유학은 실로 羊頭狗肉의 모습으로 국가의 통치이념이 되었던 것이다. 겉으로는 공자의 이상을 내세우고 堯舜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秦나라 이래의 刑名政治를 더욱 강화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역사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고정시키는 일대 변혁을 만든 것이 바로 동중서에 의해 정착된 ‘독존유술’의 진면목인 것이다.

이후 유학은 불교 도교와 더불어 중국 학술상의 3대 축으로 정립되었지만, 실은 도교나 불교가 유학에 대항하여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sup>9)</sup> 3교는 서로 간에 투쟁과 조화를 모색하면서 전개되다가 당나라 말기에 이르러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른바 삼교회통에 의한 새로운 학풍의 전개가 그것이다. 그 결과 北宋에 들어서서 성리학이 탄생하게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북송에 이르러 중국의 학술계는 춘추전국시대에 버금가는 다양한 이론과 뛰어난 학자들이 등장한다.<sup>10)</sup> 이러한 현상이 있기까지에는 결정적으로 세 가지의 사건이 촉매의

8) 이노우에 스스무, 이동철 외 역, 『중국출판문화사』, 민음사, 2013, 42쪽.

9) 이에 대해서는, 久保田量遠, 『支那儒佛道交涉史』, 東京 : 大藏出版社, 1943(번역본 최준식, 『중국유불도 삼교의 만남』, 민족사, 1990 및 김경수, 「북송초기 삼교회통론의 양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48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1) 참조.

10) 이러한 현상에 대한 논의는 김경수, 「유학의 본질과 남명학의 본질」(『남명학』 제 18집,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2013)의 제2장에서 충분히 다루었다. 본고의 논의는 이에 대한 보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달마에 의해 조사선 또는 간화선이 중국으로 전래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唐의 武宗 연간에 있었던 불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인 會昌法亂이며, 또 다른 하나는 당 말기에 새롭게 등장한 內丹道敎가 그것이다. 달마가 새로운 禪風을 가지고 온 이후 그 세력을 확장하는 중에 일어난 회창법란은 그동안 敎相判釋에 의한 宗派불교로서의 발전을 해오던 기존불교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다. '直指人心'이나 '見性成佛'과 같은 인간의 심성에 대한 직각적인 탐색이 전개되면서, 내단도교의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론적인 이해의 구조가 증첩되는 상황이 있게 되었던 것이다.

당의 韓愈와 李翱에 의해 道統論과 『중용』에 대한 중시에 바탕한 신유학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한 이래 五大十國시대 인쇄술의 발달로 인한 서적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학문의 일반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북송에 들어서는 文治주의의 강조로 유불도 삼교 모두의 서적이 정책적으로 인쇄되어 향리에까지 널리 보급되고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지식인의 행동 규범으로서의 예의 일반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그 범위가 庶人으로까지 확대되었다.<sup>11)</sup>

이와 더불어 유학은 또다시 異端에 대한 배척운동을 시작한다. 한유로부터 시작된 排佛의 이러한 움직임은 북송 초기의 宋祁와 石介 그리고 李觀와 歐陽脩 등에 의해 계승되었다. 그러나 성리학의 실질적인 주창자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北宋五子 중에서, 邵雍을 제외한 周敦頤 程顥 程頤 張載 등의 사상적 편력의 과정이 불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옹은 이와 달리 오히려 陳搏으로부터 穆脩 그리고 种放

11)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고지마 쓰요시, 신현승 옮김, 『송학의 형성과 전개』(논형, 2004) 제4장 및 이용주, 『주희의 문화 이데올로기』(이학사, 2003)의 제5장에서 이루어져 있다.

으로 이어진 도교의 역학을 이어받고 있음도 이미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그런 와중에 도교 측에서는 진단 이래로 張伯端과 王重陽에 이르기까지 삼교의 회통을 주장하는 내단도교의 틀을 완성하였으며, 불교 측에서도 永明 延壽로부터 佛日 契嵩에 이르기까지 유불융회설에 입각한 선불교의 논리를 드러내고 있었다.<sup>12)</sup> 성리학은 여전히 도교나 불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바가 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사람이 없지만, 약자인 불교와 도교는 자신들의 근본교리가 유교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화해의 길, 차라리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주희에 의해서 실제보다 크게 평가된 주돈이나 장재의 도학형성기를 거쳐, 정호가 근 1,400년 동안 맥이 끊어졌던 도통을 계승했다고 주장한 정이에 의해서 틀이 형성된 도학 곧 리학은 한때 상당한 기세를 떨쳤지만 정이의 학문도 말년에 위학으로 지목되어 배척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남송에 이르러 주희라는 유학사상 불세출의 인물이 등장하여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거대한 이상세계를 꿈꾸게 된다. 주희는 역사상 이단을 배척하고 독단을 주창한 세 번째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주희는 공자가 집대성한 유학을 이어서 송대의 유학을 집대성하여 성리학 내지는 주자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다. 주희가 만들려고 했던 이상세계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 Ⅲ. 『근사록』 『주자가례』 『소학』의 편찬과 주희

유학의 근본이념은 ‘수기치인’ 또는 ‘내성외왕’으로 규정된다. 즉 ‘자아

12) 김경수, 「북송 초기 삼교회통론의 양상」(앞의 논문, 2011)에 그러한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완성'과 이를 통한 '백성교화'가 궁극적 목적이다. 유학이 도교나 불교에 비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점이 바로 '치인' 즉 '리더십을 통한 백성의 교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전통사회에서는 그러한 역할이 일정한 부분을 담당했었다. 고대의 중국에서는 통치자 계급만이 사람(人)으로 대우 받았으며, 피지배자들은 단지 백성(民)으로서 교화의 대상이면서 지배자를 위한 봉사만이 주된 의무로 부과되었다. 춘추전국시대에 들어서 개인주의에 기반한 자유의식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계급사회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이다. 이러한 때에 유학은 신분질서의 체계를 옹호하는 사상이었으며, 타고난 신분에 대한 순응을 가르치는 역할을 실제로 담당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민이 아니라 人의 삶을 살고자 하는 계층이 확대되었다. 그 원인으로서는 노동생산성의 향상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발달도 크게 기여하였다. 민이 노동을 중심으로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人은 예악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북송에 이르게 되면 다수의 庶人들이 생업을 위한 노동과 문화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남송에 이르러 더욱 가속화 되었으니, 이는 국방정책에 대한 소홀이 오히려 경제적 부를 크게 이루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에 태어난 주희는 시대에 맞는 사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적합한 거대한 체계를 구상하였던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주희도 처음부터 그런 공부를 한 것은 아니었다. 십대 무렵 그가 가르침을 받은 스승들은 당시 사대부들이 보편적으로 그러했던 것처럼 불교에 심취해 있었고, 도교에도 관용적이었다. 그런 영향에서 자란 주희 역시 자연스럽게 그런 풍습에 젖어들었는데, 이후 24세에 李侗에게 배우면서 학문의

전환을 이룬다. 유학에도 ‘敬’을 중심으로 하는 함양과 성찰로서, 불교나 도교와 다른 ‘修己’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간취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그의 학문은 일대 전환을 이루게 되는데, 그 시작의 한 방향이 이단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이다. 그는 당시 사대부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던 大慧 宗杲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도모하였다.<sup>13)</sup> 이단에 대한 비판은 주희 평생의 과제이기도 했다.<sup>14)</sup> 그는 40세 무렵 蔡元定을 만나 학문을 논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저술에 몰두하면서 자신만의 학문체계를 정립하기 시작한다. 그는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여기서는 주자학의 기초를 이루는 몇 가지의 저술을 대상으로 그의 구상한 거대한 사상의 체계를 살펴보면서 유학의 현대적 의미 확보를 위한 단초를 찾아보고자 한다.

시기적으로 그는 『가례』<sup>15)</sup>를 41세 전후에 먼저 편찬하고, 46세 무렵에 呂祖謙과 함께 『근사록』을 편찬하였으며, 56세 무렵에 제자인 劉子澄에게 명하여 『소학』을 편찬하도록 한다. 이 차례에 따라 그의 편찬의도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학문목적을 추적해본다.

주희는 禮書에 대해 많은 정성을 기울였는데 『가례』는 40세 무렵의 저작이었고,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죽은 후 제자가 완성한 『儀禮經傳通解』는 그가 만년에 가장 관심을 가진 저작이라고 전한다. 그의 문집에 있는 「가례서」는 오늘날 『가례』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편찬의 요점을 살펴보자.

13) 이러한 관점을 잘 드러낸 것으로는 아라키 겐고, 심경호 옮김, 『불교와 유교』(예문서원, 2000)의 「주희의 철학」편이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14) 주희의 선불교에 대한 비판은 윤영해, 『주자의 선불교비판 연구』(민족사, 2000)에서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15) 이 책에 대해서는 편찬 시기부터 시작하여 위작설 및 책의 이름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이설이 있으나, 본고에서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책의 명칭에 대해서는 간단히 『가례』로만 칭하기로 한다.

三代에는 禮經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것은 宮廬器服의 제도와 出入起居의 절문으로 모두 이미 세상에 맞지 않다. 세상의 공자가 혹 고금의 변화를 참작하였다 해도 다시 한때의 법이 되고 마니, 혹은 상세하고 혹은 소략하여 절충할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일찍이 고금의 전적을 궁구하였다. 그 대체의 변할 수 없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이에 수정을 조금 가하여 一家의 책을 만들었다. 명분을 신중히 하며 사랑과 공경을 숭상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문식을 생략하고 근본과 진실에 힘써서 공자가 先進을 좇던 遺意에 덧붙였다. 진실로 원하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선비들과 함께 깊이 익히고 힘써 행하여 옛사람의 修身齊家의 도리와 謹終追遠의 마음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교화를 숭상하고 백성을 인도하는 뜻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있을 것이다.<sup>16)</sup>

이것을 알기 쉽게 요약하면, ‘옛날 경전의 예법은 지금과는 맞지 않으며, 더러 학자들이 시절에 따라 첨삭을 가한 예서들이 있으나 그 또한 그 시절에만 맞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여러 책들을 참고하여 이 책을 만들었는데, 예법의 변할 수 없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나머지는 수정을 가하였는데 쓸데없이 꾸미는 것들은 생략하고 오직 공자가 앞 시대의 것들을 취한 뜻에 따랐다. 그리하여 예법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니 이는 국가가 백성을 교화하는 뜻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주희가 참고한 주된 책은 司馬光의 『書儀』이고, 그가 채용한 예설은 정이와 장재의 이론이며, 그가 수정을 가한 부분이라는 것은 『의례』를 기초로 하되 당시 민간에서 행하던 俗禮를 전체 내용의 약 절반 정도로

16) 三代之際 禮經備矣 然其存於今者 宮廬器服之制 出入起居之節 皆已不宜於世 世之君子 雖或酌以古今之變 更爲一時之法 然亦或詳或略 無所折衷 …是以嘗獨究觀古今之籍 因其大體之不可變者 而少加損益於其間 以爲一家之書 大抵謹名分崇愛敬 以爲之本 至其施行之際 則又略浮文敦本實 以竊自附於孔子從先進之遺意 誠願得與同志之士 熟講而勉行之 庶幾古人所以修身齊家之道 謹終追遠之心 猶可以復見 而國家所以崇化導民之意 亦或有小補云

번역문은 임민혁 옮김, 『주자가례』(예문서원, 2000)의 것을 그대로 따랐다.

포함시켰다는 말이다.<sup>17)</sup> 달리 말하면, 그는 예의 근본정신은 지키되 예의 절차는 매우 간략하게 즐였고 당시 민간에서 행하고 있던 예법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이다.<sup>18)</sup> 그의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의 이러한 작업이 바로 공자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사실과, 국가의 백성교화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음이다. 이는 그의 작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발상임과 동시에, 예의 적용범위가 士大夫에게로 한정되었던 시대에서 이제 士庶人의 시대로 확대됨에 따른 예법의 마련을 자신이 이루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인을 자연스럽게 국가의 통치질서 속으로 편입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라고 하겠다.

이제 송 대의 『논어』라고 불렸던 『근사록』의 편찬 목적을 살펴보자. 『근사록』은 주희와 여조겸<sup>19)</sup>이 함께 편찬하였는데, 6개의 범주에 14항목으로 나누어 총 622조목을 수록하였다.<sup>20)</sup> 수록한 내용들은 주돈이 장재 정호 정이 등의 글 16종에서 항목별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부분들을

17) 이용주, 앞의 책 203-208쪽 참조.

18)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로는 최진덕, 「주자가례와 주자학」(『국학연구』 제16집, 한국국학진흥원, 2010) 및 彭林, 「주자가례와 고례」(『국학연구』 제16집, 한국국학진흥원, 2010) 등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가례』가 수용 보급된 과정에 대해서는 장동우, 「주자가례의 수용과 보급과정」(『국학연구』 제16집, 한국국학진흥원, 2010)이 있다.

19) 여조겸은 이때 주희와 더불어 독서하고 난 후에 육상산 형제와의 이른바 ‘아호사의 모임’을 주도한다. 여기서부터 주희의 성리학과 육구연의 심성학이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주희는 육구연의 학문을 ‘太簡’하다고 비판하였고 육구연은 주희의 학문을 ‘支離’하다고 비판하였다. 이 모임 이후 주희는 자신이 지향하는 학문의 완벽한 시스템화를 목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단적 학문을 배척하는 입장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본다.

20) 『근사록』에 대한 개괄적 내용과 그 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과정 등에 대해서는 송희준, 「근사록의 도입과 이해」(『한국학논집』 제25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이 평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려 뽑은 것이다. 1175년 여조겸이 주희를 방문하여 함께 네 사람의 글을 읽고서 초학자들이 성리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편찬하여 1178년 4월에 완성하였는데, 주희는 이 책의 편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나는 그[여조겸]와 함께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의 글을 읽고 그들의 학문이 크고 넓어서 끝없는 것에 감탄했다. 그래서 초학자들이 학문에 들어갈 바를 모를까 두려워하여 도의 대체에 관계되는 것과 일용에 절실한 것을 취하여 이 책을 편찬하였다. ...대개 모든 초학자들이 이치의 단서를 찾아 힘을 쓰고, 자기 몸가짐과 남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는 것과 또 이단을 분별하고 성현을 본받는 일의 대략에 있어서 그 경계를 나타냈다. 그 때문에 궁벽한 시골의 후진들이 학문에 뜻을 있어도 좋은 스승이나 훌륭한 벗이 없어서 그를 인도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진실로 이 책을 얻어서 완미하면 족히 학문의 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sup>21)</sup>

요점을 정리하자면 주희가 이 책을 편찬한 의도는, 북송4자의 학문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궁벽한 시골의 선비들까지도 이 한 권의 책으로 성리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책에서부터 시작하여 요점을 얻은 후에 비로소 그들 네 사람의 저서를 읽어야만 된다는 순서까지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편찬의도는 함께 작업했던 여조겸의 「후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책의 첫머리에 '陰陽變化性命의 설'을 실은 이유는 배우

21) 『근사록』 주희 「서」: 相與讀周子程子張子之書 歎其廣大闊博 若無津涯 而懼夫初學者不知所入也 因共撰取其關於大體 而切於日用者 以爲此編 ...蓋凡學者所以求端用力處已治人之大要 與夫辨異端觀聖賢之大略 皆粗見其梗概 以爲窮鄉晚進 有志於學 而無明師良友以先後之者 誠得此而玩心焉 亦足以得其門而入矣.

는 자들이 목표로 지향해야 할 바를 먼저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부터의 13항목은 그야말로 그 차례를 지켜서 순서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친절한 설명을 하고 있다. 즉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미치는(自卑升高 自近及遠)' 철저한 단계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여조겸의 「후서」에는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다. 바로 '나는 가만히 일찍이 책의 편집순서의 의도를 들었다(祖謙竊嘗聞次緝之意)'는 말이다. 이것은 이 책은 둘이서 함께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주희의 의도대로 편집하면서 여조겸은 그저 그 의견에 따랐다는 말이라고 하여도 무리가 없다는 뜻이다. 주희는 북송4자가 성리학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유학의 근본이념의 체제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유학과 성리학의 단절감이나 이질감을 해소하면서 모든 학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제시하는 학문방법론을 따르도록 하고자 『근사록』을 편찬했던 것이다. 뒤에서 살펴볼겠지만 주희의 이러한 의도는 『대학』과 『중용』에 대한 견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제 주희의 명을 받아 이미 몇 종류의 어린이 계몽서를 편찬한 경력이 있는 유자징이 2년 동안의 시간을 들여 완성한 『소학』의 편찬의도를 살펴보자. 『소학』은 6권으로 이루어졌는데 내편과 외편으로 나누어, 내편에는 入教 明倫 敬身 稽古 등으로 되어 있고, 외편은 嘉言과 善行으로 되어 있다. 주희는 이 책의 편찬에 즈음하여 그 서문인 「題小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옛날의 소학[학교]에서는 灑掃應對와 進退의 절도 등 일상의 예절과 愛親 敬長 隆師 親友 등 사람됨의 도리를 중심으로 가르쳤다. 그것은 모두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근본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예절과 도리를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게 하여 지식성장과 인격완성을 도모하고, 규율을 무시하는 습관을

제거했다. 지금은 옛날 소학에서 가르치던 내용을 담은 서책을 볼 수는 없지만, 잡다한 형태로 적지 않은 내용이 전해오고 있다. …그래서 그 단편적 기록들을 크게 수습하여 이 『소학』을 편집하고 어린이를 가르치는 강습교재로 제공하고자 한다. 그것이 풍속의 교화에 만 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sup>22)</sup>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주희는 옛날에는 ‘소학’이라는 정규교육기관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교육내용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소학 교육의 목표는 지식성장과 인격완성에 더하여 사회적 규율을 무시하는 습관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셋째 『소학』이라는 책은 중간에 없어졌지만 그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은 다른 책에 여러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며, 넷째 자신이 이 책을 편찬한 의도는 풍속의 교화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소학』은 수기치인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학’이라는 교육기관에서는 정해진 내용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러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문제이지만 그 교육목표 중에 사회적 규율을 무시하는 습관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시킨 점은 참으로 주희다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학의 ‘禮敎’시스템을 철저히 펴고자 하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실된 『소학』의 내용이 다른 책에서 잡다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도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주장한 것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내편의 내용들은 『서경』 『의례』 『주례』 『예기』 『효경』 『좌전』 『논어』 『맹자』 『제자직』 『전국책』 『설원』 등에서 인용한 것으로 알

22) 古者小學敎人以灑掃應對進退之節 愛親敬長隆師親友之道 皆所以爲修身齊家治國平天下之本 而必使其講而習之於幼稚之時 欲其習與知長 化與心成 而無仟格不勝之愚也 今其全書雖不可見 而雜出於傳記者亦多 …今頗蒐輯 以爲此書 受之童蒙 資其講習 庶幾有補於風化之萬一云爾.

려져 있다. 그런데 앞에서 열거한 책들을 본다면, 이들이 『소학』에서 일  
 실된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들은 대부분 경전급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궁극  
 적으로 그가 이 책을 통하여 의도하고 있는 바는 풍속의 교화이다. 실제  
 로 그는 옛날에 『소학』이라는 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주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또한 만약 ‘소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다고  
 해도 그 시대에 교육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란 그야말로 왕족과 극소  
 수의 귀족자제들이었을 것임은 주희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런데 주희의 시대는 이미 사대부 층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庶人까지  
 도 ‘예교’의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의 보편적 예  
 교시스템으로 묶어서 잘 조직된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주희의 참된  
 목적이 아니었을까! 풍속의 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말  
 은, 이 책을 토대로 이 시대의 사람들을 교화시켜야 한다는 강한 주장을  
 완곡히 표현한 것일 뿐이 아닐까!

#### IV. 『대학』 『중용』의 사서편입과 주희

유학의 공부 목적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학』과 『중용』이다. 『대학』은 유학의 목적을 ‘明明德’ ‘親民’ ‘止於至善’의  
 3강목과, ‘격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8조목으  
 로 정리한 經文이 있고, 그 뒤에 정이와 주희에 의해 정리 보충된 10장  
 의 傳이 있어 경문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중용』은 ‘천명’ ‘성’  
 ‘도’ ‘교’에 대해서 첫머리에 말하고, 이어서 ‘中和’에 대해서 말하며, 다시  
 ‘중’과 ‘용’을 體用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은 ‘誠’에 대해서 설명하

고, 마지막에는 至誠을 체득한 성인의 도와 덕 그리고 교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원래 『대학』과 『중용』은 현행본 『예기』의 42편과 31편으로 들어있는 것이었다. 『대학』은 당나라의 한유에 이르기까지 크게 중시되지 않았는데, 그가 그 내용을 인용하여 도교와 불교를 배척하는 근거로 삼고서부터 중시되었다. 『중용』은 한나라의 鄭玄이 처음으로 주석을 달았고, 당나라 후기의 이고 이후로 크게 중시되다가 북송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주석서가 저술되기에 이르렀다. 두 책은 정이가 『예기』로부터 독립시켜 四書로 분류하였으며, 주희에 이르러 그가 『사서집주』를 편찬함으로써 그 지위를 확고하게 하였다. 이후로 성리학의 시대에서는 ‘經’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실용적 학문에서는 經보다 많이 읽히게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주자는 이 두 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였던가? 주희는 『대학장구』를 지어 전체의 내용을 經1章 205글자와 傳10章 1546글자로 개정하였다. 이는 정이의 설을 기초로 하여 자기의 설을 더한 것으로, 錯簡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내용을 고치고 일실된 것으로 판단한 傳5章은 자신이 보충해서 넣었다. 이 부분을 ‘補亡章’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격물치지에 대한 설이므로 보통 ‘格致補亡章’이라고 한다. 이것이 주희 유학의 인식론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한편, 주희는 『중용장구』와 『중용혹문』도 지어 그 뜻을 천명하면서 도통론을 완성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대학장구』의 서문은 주희의 학문관을 잘 드러내고 있고, ‘보망장’은 주희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만큼 그의 의도를 잘 표현하고 있다. 먼저 「대학장구서」의 요지를 살펴보자.

『대학』이라는 책은 옛날 대학에서 사람을 가르친 법의 바탕이다. …三代의 융성했던 시기에 학교의 제도가 점차로 갖추어진 뒤에는 왕궁이나 나라의 도성으로부터 閭巷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없는 곳이 없었다. 사람이 나서 8세가 되면 王公으로부터 아래로 서민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학에 들어가 그들에게 채소옹대 진퇴의 절도와 禮樂射御書數의 육예에 관한 글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들이 15세가 되면 천자의 큰아들과 그 밖의 아들로부터 公卿大夫元士의 자제들 및 서민의 자제 중 뛰어난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학에 들어가 공리정심 수기치인의 도리를 가르쳤다. 이는 또 학교 가르침의 크고 작은 갈래가 된 까닭이다. …이리하여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배우지 않은 이가 없었고, 그 배운 사람들은 자기 본성의 분수에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것과 직분으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을 알아서 각자가 힘써 자신의 역량을 다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삼천 명이나 되는 문도 중에서 대학에 관한 설명을 듣지 않은 이가 없었지만 증자의 傳만이 홀로 그 정통을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해설을 지어서 공자의 뜻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맹자가 돌아가시자 그 전함이 없어져 버렸으니, 증자의 책은 있다고 하나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때부터 숙된 선비들이 경전을 암송하고 시문을 짓는 습관은 그 노력을 『소학』에서보다 배나 더 하였으나 쓸데가 없었고, 이단적인 도교나 불교의 가르침은 그 고답함이 『대학』보다 더 하였으나 실속이 없었다. …이에 河南 땅의 程氏 두 선생이 나오셔서 맹자의 도통을 잇게 되었으니, 실로 처음으로 『대학』의 편차를 제대로 정리하여 그 취지를 밝혀 놓으시니, …비록 나(주희)는 불민하지만 또한 다행히도 私淑하여 그 가르침을 들은 바가 있다. 그러나 후에 돌이켜보니 그 책은 매우 산란하여져 있었다. 그래서 나의 고루함을 잊고 산란한 것을 찾아 모았으며, 간간히 또 사사로운 나의 뜻을 첨가하여 그 빠지고 간략한 점을 보충하여 …국가가 백성을 교화하여 좋은 풍속을 이룩하는 뜻과 학자들이 자기의 덕을 닦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도에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sup>23)</sup>

23) 大學之書 古之大學 所以教人之法也 …三代之隆 其法寢備 然後 王宮國都 以及閭巷 莫不有學 人生八歲 則自王公以下 至於庶人之子弟 皆入小學 而教之以灑掃應對進退之節 禮樂射御書數之文 及其十有五年 則自天子之元子衆子 以至公卿大夫元士之嫡子 與凡民之俊秀 皆入大學 而教之以窮理正心修己治人之道 此又學校之教 大小之節 所以分也 …是以當世之人 無不學 其學焉者 無不有以知其性分之所固有 職分之所當爲 而各俛焉以盡其力 …三千之徒 蓋莫不聞其說 而曾氏之傳 獨得其宗 於是作爲傳義 以發其意 及孟子沒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주장을 담고 있다. 첫째 三代시대에는 왕궁으로부터 여항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있었다는 점, 둘째 8세가 되면 서민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학에 들어가 기초적인 공부를 하였고 15세가 되면 천자의 자제부터 서민의 자제 중에서 빼어난 자에 이르기까지 대학에 들어가 수기치인의 공부를 하였다는 점, 셋째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직분에 맞는 역할을 다했다는 점, 넷째 공자의 문도 중에서 오직 증자만이 『대학』의 참뜻을 이어받았고 맹자 이후로 그 맥이 끊어져 학자들의 공부는 쓸데가 없어졌고 이단의 실속 없는 학문이 융성했다는 점, 다섯째 정호 정이 두 형제가 맹자의 도통을 이어받아 『대학』의 가치를 살렸다는 점, 여섯째 주희 자신이 그들의 맥을 계승하여 『대학』의 잘못된 부분을 고쳤다는 점, 일곱째 이 책이 백성들의 교화와 학자들의 수기치인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이다.

여기서 첫째와 둘째에서 서민의 기준이 무엇이든 어떤 계층을 지칭하는지의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은 접어두더라도 주희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셋째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과, 넷째부터 여섯째의 도통에 대한 주장 그리고 자신이 완벽하게 정리한 이 책이 백성교화와 학자들의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리학의 시대를 확고히 다지고자 한 주자의 커다란 꿈이 모두 드러나고 있는 글이다. 주희는 자신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빗대어서 이 서문의 서두에서 '충명하고 예지가 있어 그의 본성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나오면, 곧 하늘은 반드시 그에게 명하여 만민의 임금과 스승으로 삼게

---

而其傳泯焉 則其書雖存 而知者鮮矣自是以來 俗儒記誦詞章之習 其功倍於小學而無用 異端虛無寂滅之教 其高過於大學而無實 …於是 河南程氏兩夫子出 而有以接乎孟氏之傳 實始尊信此篇而表章之 既又爲之次其簡編 發其歸趣 …雖以熹之不敏 亦幸私淑而與有聞焉 顧其爲書 猶頗放失 是以忘其固陋 采而輯之 間亦竊附己意 補其闕略 以俟後之君子 極知僭踰無所逃罪 然於國家化民成俗之意 學者修己治人之方 則未必無小補云.

하고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교화하게 하여 그들의 본성을 되찾도록 하였'<sup>24)</sup>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당세의 스승으로 자신의 역할을 통감하면서 그 의무를 다하고자 했던 것이다.

주자의 꿈은 획일적인 원리 위에서 일사분란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며, 그 어떤 다양성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주자의 이러한 외교집은 그의 만년에 결국 '慶元의 당'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는 정호정이 형제를 최고로 받들고 여기에 부차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주돈이와 장재를 포함시키고, 그 외의 선배학자들은 모두 괄호 밖으로 두었다. 동시대의 陸九淵과도 견해를 달리하였고, 『근사록』 함께 편찬했던 여조검과도 만년에는 『시경』에 대한 학문적 견해차로 인하여 등을 돌리게 된다. 주희에게는 자기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모두 적이었던 것이다. 주희의 성리학은 僞學으로 몰렸고, 아이러니하게도 원나라 때에 이 민족의 중국통치 수단으로 국교로 도입된다. 그리하여 이후 그 영향력은 막대하였지만 양명학의 비판을 면치 못하였고, 청대의 고증학자들에게서는 근본적인 비판을 받기에 이른다.<sup>25)</sup>

주희가 얼마나 완벽한 시스템에 대한 갈망을 가졌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격치보망장'이다. 그는 『대학』 전체의 체계에서 볼 때, 傳5장 부분에 결락이 있다고 보았다. 3강목 8조목에 대한 보충설명에서 '격물치지'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는데, 바로 여기서 절묘하게도 부합되는 내

24) 一有聰明睿智能盡其性者 出於其間 則天必命之 以爲億兆之君師 使之治而教之 以復其性.

25) 청의 고증학자 戴震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의 주희 비판은 명쾌한데, 성리학의 '리' 자체를 허구의 개념으로 규정하며, 주희의 저술에 대해서도 철저한 고증에 입각하여 잘못된 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성리학의 본거지인 중국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은 훨씬 강력한 힘으로 통치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는 특이한 현상을 초래하였다. 역시 사상의 통제는 작은 나라일수록 용이한 것인가!

용을 찾았던 것이다. 그는 ‘가만히 정자의 뜻을 취하여 보충한다(間嘗竊取程子之意以補之)’고 하면서 자신의 견해로 격물치지의 의미를 추가해 넣었다. 그리하여 『대학』의 내용을 완전하게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냈다.

『중용』은 여러 주석서가 있었고 그 중에서 정이의 『중용해』는 원래 33장이던 내용을 37장으로 개편한 것이었다. 주희가 이를 다시 33장으로 편집하여 『중용장구』를 편찬하고서 그 서문을 지어 책의 대의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의도를 서술하였다.

중용은 무엇 때문에 지었는가? 道學이 그 전통을 잃게 될까 근심하여, 子思子가 지은 것이다. 아주 옛날에 신성한 사람이 하늘의 명을 이어받아 법을 세우면서부터 道統이 전해져 내려왔다. 그것이 경서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양하면서 “참으로 그 중을 잡으라”고 하였고,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선양하면서 “인심은 위태하고, 道心은 미세하다. 오직 정밀하고 오직 한결같아야만, 참으로 그 중을 잡을 수 있다”고 하였다. 요임금의 한 마디는 더할 수 없이 착하고 아름다운데, 순임금이 다시 그 말에다 세 마디를 더 보탠 까닭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요임금의 말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때부터 성인과 성인이 천하의 임금 자리를 서로 계승하여 내려왔으니, 탕왕 문왕 무왕 같은 임금들과 皐陶 伊尹 傳說 周公 召公 같은 신하들이 모두 이러한 가르침을 실현함으로 도통의 전승을 이었다. 우리 孔夫子같은 분은 비록 합당한 지위를 얻지는 못하셨지만, 옛 성인을 계승하고 앞날의 배울 사람들을 계발하였으니, 그의 공로는 요임금이나 순임금보다 더 훌륭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공부자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으로는 顏回와 曾參이 그 도통을 전해 받았을 뿐이다. 曾參의 再傳제자 가운데 또 공부자의 손자인 子思가 나왔지만, 그때는 벌써 성인의 시대에서 멀어져 이단이 일어났다. …그 뒤 자사의 제자인 맹자가 나와 이 책을 부연 설명하면서 예전 성인의 도통을 계승하였다. 그러다가 맹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드디어 그 전승이 끊어졌다. 그 뒤로는 뛰어난 스승이 나오지 않아, 우리 道가 기탁한 곳이라고는 언어, 문자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그 반면에 이단의 학설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다달이 성하여졌으며, 老莊과 佛家의 무리들까지 나오게 되면서는 더욱 이치에 가까워지는 듯하면서 진리를 몹시 어

지렵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다행히 이 책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호정이 두 형제가 나와 연구하면서 천 년 동안 전해오지 못하던 실마리를 이을 수 있게 되었고, 의거할 곳이 있어서 사이비인 노장과 불가를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중용장구 한 편을 편술하여 뒷날 군자들의 비판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누가 도통을 제대로 전수받았는지를 함부로 논할 수는 없지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어찌다 이 책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이 또한 한층 깊은 연구에 한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sup>26)</sup>

이 내용을 정리하면, 『중용』은 유학의 도를 이어받은 이들에게 전해져 온 心法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점과, 그 도통은 요 순 우 탕 문왕 무왕 고요 이윤 부열 주공 소공 공자 안희 증삼 자사 맹자 정호 정이로 이어져서 결국 주희 자신에게까지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그 중간에 노장과 불교의 이단이 흥기했지만 다시 이 책의 요지를 밝혀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자신이 편찬한 『중용장구』가 학자들의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주희는 도교와 불교, 특히 불교의 마음수행법에 심각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유학의 『중용』에서 이에 대항할만한 심법을 찾은 그는 誠과 敬의 방법을 통해 中庸에 이르는 학문방법론 즉 성리학적 수양론을 세우게 된다. 그는 『상서』 「大禹謨」에 있는 요 순 우 사이에 전해진 심법인

26) 中庸 何爲而作也 子思子 憂道學之失其傳而作也 蓋自上古聖神 繼天立極 而道統之傳 有自來矣 其見於經則 允執厥中者 堯之所以授舜也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者 舜之所以授禹也 堯之一言 至矣 盡矣 而舜復益之以三言者 則所以明夫堯之一言 必如是而後 可庶幾也 …自是以來 聖聖相承若成湯文武之爲君 皐陶伊傅周召之爲臣 既皆以此而接夫道統之傳 若吾夫子 則雖不得其位 而所以繼往聖開來學 其功反有賢於堯舜者 然當是時 見而知之者 惟顏氏曾氏之傳得其宗 及曾氏之再傳 而復得夫子之孫子思 …自是而又再傳以得孟氏 爲能推明是書 以承先聖之統 及其沒而遂失其傳焉 則吾道之所寄不越乎言語文字之間 而異端之說日新月盛 以至於老佛之徒出 則彌近理而大亂眞矣 然而尙幸此書之不泯 故程夫子兄弟者出 得有所考 以續夫千載不傳之緒 得有所據 以斥夫二家似是之非 …既爲定著章句一篇 以待後之君子 …雖於道統之傳 不敢妄議 然初學之士 或有取焉 則亦庶乎行遠升高之一助云爾。

中과 人心 道心의 설에서 그 단서를 찾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청대의 고증학자들에 의해서 현재는 원래의 『상서』에는 없던 구절임이 밝혀진 것이다. 『僞古文尙書』에 있던 것을 중간에 『상서』에 끼워 넣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희의 이러한 견해는 한 편의 코미디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주희 자신의 당시 입장에서 본다면 성리학이 불교를 능가할 수 있는 좋은 단서였던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러한 바탕위에서 정립한 도통론도 사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은 다만 주희의 꿈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구상한 완전한 세계, 조화로운 국가를 위하여 많은 것을 하나의 체계로 조립하였다.

## V. 유학의 현대화를 위한 제언

유학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인간'의 행동, 특히 정치와 교육 등에서 인간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간의 자격요건으로서 먼저 '자기완성'을 필요로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에 이는 더욱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서양의 관점으로 본다면 '노블레스 오블레쥬'의 실현이면서, 오히려 도덕적으로 더욱 성숙한 인간상을 요구하고 있음이다.

그러나 맹자로부터 시작된 이단과의 싸움은 유학의 특권처럼 되었고, 유학이 국가의 통치이념이 된 이후로는 독존의 지위를 누린 시기가 많았다. 북송에 들어서 도학이 발흥하면서<sup>27)</sup> 유불도 삼교는 서로 간에 많은

27) 유학이 새로운 양상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道學이라 칭했는데, 이는 다소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도 결국은 불교나 도교의 영향을 받아

교섭이 있었다. 사실 이 시기에는 민중들뿐만 아니라 사대부들조차도 겉으로는 유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도불에 심취한 자가 많았던 것이었고, 『도학전』에 수록된 인물들로부터 주희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도교에 깊이 관련을 가지지 않았던 인물은 없다. 성리학이 형성기를 지나 주희에 의해 집대성되어 완벽한 체계를 갖추게 되기까지 그는 불굴의 노력으로 성리학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였다. 주희는 엄청난 저술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 본고에서는 『가례』 『근사록』 『소학』 『대학장구』 『중용장구』를 편찬한 그의 의도를 분석하여 그가 이루고자 했던 이상세계를 살펴보았다.

그가 가장 민감하게 대응했던 부분이 바로 유교적 예제의 붕괴였다. 당시 도교와 불교의 예제가 민간예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사대부들도 유학의 복잡한 예제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는 『가례』를 편찬하여 유학의 예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간의 예를 수용하여 유학의 古禮를 대신하고자 하였다. 이런 방법만이 王公으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유교의 예제로 다시 돌이키는 첩경이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근사록』을 편찬하여 성리학의 범위를 북송4자로 한정하면서, 이를 통하여 성리학에 입문하는 초학자들부터 시골의 선비들까지 학문에 입문하는 문으로 삼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는 『근사록』을 읽은 후에 북송 4자의 책을 읽도록 하였으며, 그 이후에 사서를 읽되 그 또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의 순서로 읽도록 지남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그는 『소학』을 편찬하여 어린아이 때부터 철저히 유교적인 학습에만 젖어들도록 방편을 만들었다.

어린아이와 초학자 그리고 시골의 선비들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하나

---

그들을 옆두에 두고서 쓴 명칭일 가능성이 많다.

의 유학적 시스템을 건설하면서, 한편으로 그는 성리학의 목표와 그에 이르는 단계 및 학문방법론으로서의 수양론도 완성하여 제시했으니 바로 『대학』과 『중용』을 중시하여 사서로 標章한 것이다. 그는 스스로 당세에 있어 도통을 이어받은 '스승'으로 자임하였으며, 이런 모습은 侍講이 되어 황제를 교화했던 만년 중앙에서의 벼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 결과 그는 정적들의 미움을 사고 황제의 기피대상이 되어 불행하고 쓸쓸한 만년과 임종을 맞이한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로 꿰려고 한 그의 꿈은 이론적 틀로서는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틀의 많은 부분들은 억지와 조작으로 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사상가로서 누구도 이루지 못한 종합적 시스템을 완성한 인물이었다고, 그의 사상은 이후 700여 년 동안 동아시아의 주류로서 작동해왔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유학은 서구사상에 밀려 급격히 쇠퇴하였다. 당나라 때에 달마가 선불교를 가지고 중국에 온 이래, 기존의 불교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서 쓰러지기 직전에 선불교로 명맥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았다. 중국 전통의 도교는 외단을 버리고 선불교와 결합하여 내단도교로 전환하였다. 유학은 이 두 가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자양분을 길러 일신하여 성리학으로 거듭났다. 그리고는 그들을 압도하였다. 불교와 도교가 더 이상의 혁신을 이루지 못한데 반하여 성리학은 주희라는 집대성자를 만나 승자가 되었다.

이런 관점을 토대로 오늘날 유학의 역할과 입지를 모색해보자. 유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날 이단은 무수히 많다. 유학이 그들 모두와 싸워서 이기고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역할분담이다. 유학은 자신이 가진 장점만을 살리고 다른 부분은 다른 것들에게 양보하는 회통의 입장을 지녀야 한다. 옛날 유학의 궁극적 목표는 '성인이 세상을 다스려 이상적인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들

에게는 높은 도덕적 덕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유학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유학은 교양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침이나,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지도자를 위한 유학적 리더십의 모형화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유학이 할 수 있는 '치인'이 아닐까? 오늘날 '예교'를 통한 '교화'는 어렵도 없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배척해 온 이단의 종교들에 의한 예의 시행이 이제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모두가 매우 간편한 예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유교적 전통에 따른 의례규범의 마련은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주희의 입장과 같이 민간의 속설을 대부분 채용한 것이어야만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시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물질문명의 시대에 불교나 기독교 등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安心立命'의 방법에 대해서 즉 개인적 수양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유교적 수양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급할 수도 있겠다. '수신'의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整齊嚴肅' '常惺惺法' '其心收斂' '主一無適' 등의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양식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서원이나 향교 또는 일반교육기관에서 조금씩 시행하고 있는 '선비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 참고문헌 】

- 『논어』
- 『맹자』
- 『대학』
- 『중용』
- 『근사록』

『주자가례』

『소학』

김학주, 『공자의 생애와 사상』, 명문당, 2003.

許進雄 著, 홍희 옮김, 『중국고대사회』, 동문선, 2003.

가노 나오키, 오이환 역, 『중국철학사』, 을유문화사, 1986.

이노우에 스스무, 이동철 외 역, 『중국출판문화사』, 민음사, 2013.

保田量遠, 『支那儒佛道交涉史』, 東京 : 大藏出版社, 1943.(번역본 : 최준식, 『중국유불도 삼교의 만남』, 민족사, 1990.)

고지마 쓰요시, 신현승 옮김, 『송학의 형성과 전개』, 논형, 2004.

이용주, 『주희의 문화 이데올로기』, 이학사, 2003.

김정일, 『유교탄생의 비밀』, 바다출판사, 2013.

아라키 겐고, 심경호 옮김, 『불교와 유교』, 예문서원, 2000.

윤영해, 『주자의 선불교비판 연구』, 민족사, 2000.

최진덕, 「주자가례와 주자학」, 『국학연구』 제16집, 한국국학진흥원, 2010, 39-71쪽.

彭林, 「주자가례와 고례」, 『국학연구』 제16집, 한국국학진흥원, 2010, 9-38쪽.

장동우, 「주자가례의 수용과 보급과정」, 『국학연구』 제16집,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3-206쪽.

송희준, 「근사록의 도입과 이해」, 『한국학논집』 제25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8, 131-145쪽.

김경수, 「복송초기 삼교회통론의 양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48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1, 27-67쪽.

김경수, 「유학의 본질과 남명학의 본질」, 『남명학』 제18집,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2013, 237-280쪽.

Abstract

The Age of Neo-confucianism and Zhu Xi's fantastic Idea  
 - Searching for a Clue of Modernization of Neo-Confucianism -

Kim, Kyeong-Soo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impact of Confucianism has decreased. It appears that Confucianism would be hard to retrieve its honor. Zhu Xi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transition from Confucianism to Neo-Confucianism. In this paper, I analyze the five fundamental intentions of his works and the ideal type of Neo-Confucianism rules he designed.

He considered the manners of Confucianism collapsing. At that time, manners of Taoism and Buddhism were popular among people, and this trend was so prevalent that even illustrious officials didn't take complex manners from Confucianism. Thus, Zhu Xi published Garye(Family Rituals) and minimized the manners of Confucianism. This may be the only way he can bring original fans back to the Confucianism. He also has written Geunsarok(Jin-si Lu) so that he made it possible for beginners and countryside scholars to find the book worth reading as an introduction to Neo-Confucianism. He let people follow the order he made in reading, and he published So Hak(The minor Learning) in order that he had children start to learn only from Confucianism. On the other hand, while describing important points of Dae Hak(Great Learning) and Chung yong(The Doctrine of the Mean), he completed the theory of self cultivation not only as a goal of Neo-Confucianism and but also as steps to reach its goal. He regarded himself as the master but this self-conceited mind brought him hatred from political rivals and the emperor. His dream to

unite the world into one way is theoretically achieved but it is actually made by the unreasonable and fabricated way. However, he as a great thinker was the only person who completed the comprehensive system of Neo-Confucianism, and his thought has been widespread as the mainstream for the past 700 years after him.

It is prerequisite for Confucianism to decide who does what from other religions and thoughts. Confucianism can function as a guideline for people in living in society. Furthermore, modeling the Confucian leadership would be helpful for leaders of society. It is necessary to set the standard of manners in minimum, but, it is impossible to force people to follow the manners. In conclusion, Confucianism needs to design the models of self cultivation, and to propagate some effective programs like other religions to the society.

**Key Word**

Confucianism, Neo-Confucianism, Cultivating self and governing people, Scholar and Illustrious official, Scholar and the common people, Heresy, Edification for propriety, Zhu Xi.

▪ 논문투고일 : 2014.1.2. 심사완료일 : 2014.2.11. 게재결정일 : 2014.2.14.